

대행 스님

이것이 틀리다 어쩐다 이런 이론을 붙이면 진짜 공부 못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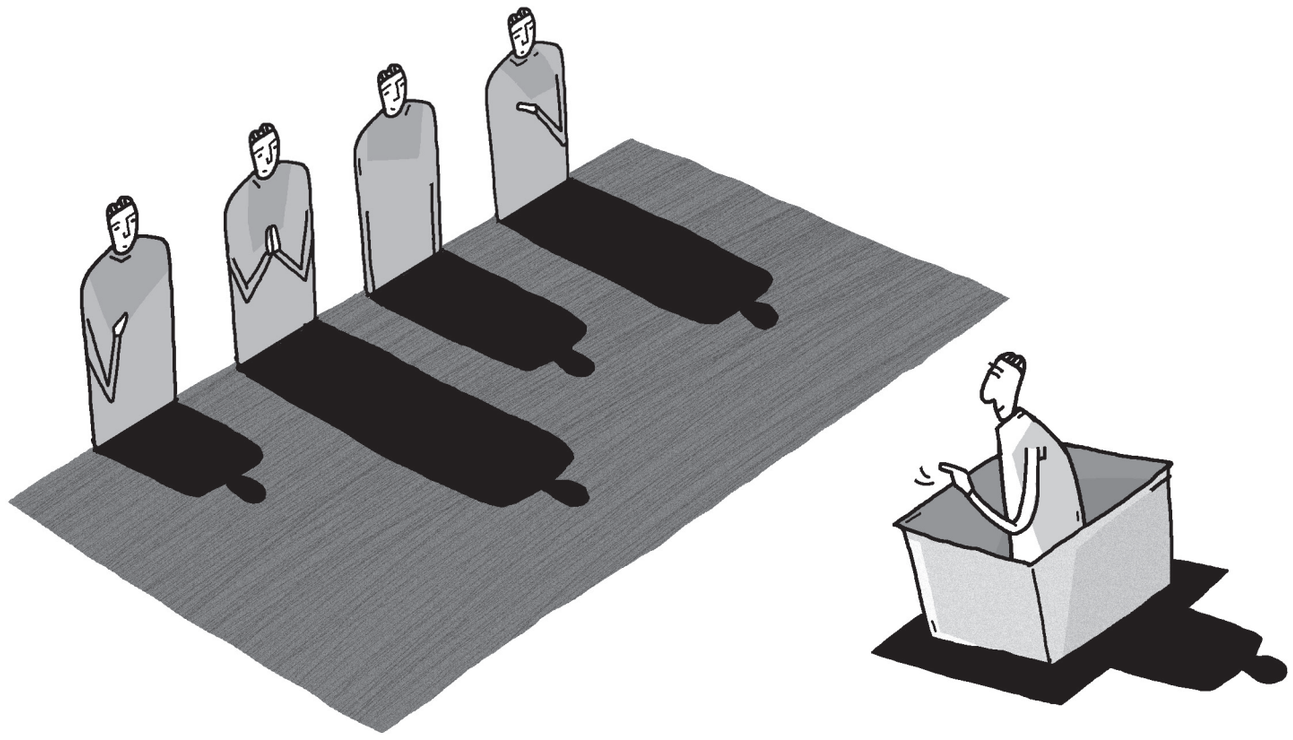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저도 한번 죽어 보고 싶은데

질문 저는 주관이 강해서 남들과 타협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절 항상 어려워합니다. 죽어야 나를 본다고 하셨는데 제 갈길은 너무나 멀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저도 살아서 한번 확실하게 죽어 보고 싶습니다. 한 말씀 내려 주십시오.

답변 여러분은 이래도 한 철 저래도 한 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요, 한 번은. 그러니 이왕 죽을 거라면 아예 죽든 말든 다 그냥 오로지 버리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버리고 버리지 않고 그걸 떠나서 우리는 그냥 공했습니다. 그냥 찰나찰나 우리가 여기 발 디뎌 놓고 떼어 놓는 거와 같아요.

하나하나 없어지고 하나 떼면 하나 없어지고, 이거 보면 이거 없어지고 저거 보면 저거 없어지고, 이 사람 만나면 저 사람 없어지고 저 사람 만나면 이 사람 없어지고, 이거 먹으면 저거 없어지고, 이렇게 모두가 죄 없어지는데 그 없어지는 거를 왜 붙들고 늘어지십니까.

그래서 나는 그래요. 긴 사람을 보면 길게 그냥 한마음으로 돼 주고 짧은 사람을 보면 짧게 그냥 한마음으로 돼 주고 둥근 사람을 보면 둥글게 그냥 한마음으로 돼 주라고 말입니다. 정말 누구 말마따나 접시가 종지라고 우기더라도 "아이, 종지가 맞아요." 이렇게 그냥 해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두들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고 이론이 그렇게 붙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틀리다 어쩐다 이런 이론을 거기다 붙이면 진짜 공부 못 해요.

여러분은 똥 누러 가는 데도 이유가 붙고 배고파서 밥 먹는 데도 이유가 붙습니까? 주무시는 데도 이유가 붙습니까? 그렇진 않겠죠? 졸리니까 그냥 잘 뿐이지, 고렇게 이유가 붙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살아나가는 데에 말입니다, 이유가 하나도 붙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고, 사랑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고, 내가 가고 싶으니까 가는 거고, 오고 감이 없이 말입니다. 함이 없이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거 이유가 붙지 않아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거나 사는 데 뭐, 저거 하면 거기 이유가 꼭 붙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창살 없는 창살을 만들어 놓고 바로 그 창살을 넘나들지 못하는 이유죠.

만약에 누가 틀리면 전자에 그렇게 틀렸을 때 내 모습으로만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모자라는 것도 '아이, 내가 전자에 모자랄 때 모습이로구나!' 하고 마음을 쓰면 공부도 좀 유순해지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하나 보면 하나 끄집고 둘 보면 둘 끄집고 이렇게 하니, 아니 지금 시공을 초월해서 그냥 찰나에 들어가는 이런 공부인데 그냥 이것 말하고 저것 탓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언제 저승에 들어가서 저승 공부를 하렵니까?

살아서 열반을 못 한다면 죽어서도 열반이 아니 되죠. 경전을 통해서 통달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론에 불과하지 실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심성 해탈이라야 그게 통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유롭고요.

답답한 마음에 사주를 봤는데

질문 부끄럽지만 마음공부를 한다고 하면서도 요즘 자주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되는 일도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사주를 보러 갔더니 삼재가 들어서 그렇답니다. 괜히 갔다 후회하면서도 자꾸 걸리게 됩니다. 이 모자란 중생이 그래도 마음의 중심 잡고 갈 수 있도록 호되게 꾸짖어 주십시오.

답변 이 공부하는 데는 좋은 거든지 나쁜 거든지 안 되는 거든지 되는 거든지, 되는 것은 감사하게 놓고, 겸손하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대로 믿고 놔라. 패기가 없다면 믿는 것이 다 무효로 돌아갈 수도 있고, 바깥으로 믿는다면 허황된 미신에 불과합니다. 안으로 믿고 안으로 굴릴 수 있고 도도하게 패기를 가지면서 언제나 겉으로는 겸손하게 굴려야 된다 이거죠. 그렇다고 마음이 떳떳하다고 해서 나를 세우는 떳떳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은 이사를 가는데 북쪽으로 삼살방이 들어서 계약은 해 놓고 못 갔다는 분도 있습니다. 처음 오는 분들이 그러겠지마는 삼살방으로 가면 집안이 잘 안되니까 죽는다고 누가 그랬답니다. 또 어떤 분은 "삼살방이 들기 이전에 이사를 가면 가환이 떠나질 않는다. 너는 내년에 꼭 죽을 사주팔자고 삼재가 들었으니까 잘못될 거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이런 말을 들었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약했으면 자기가 인간이 되기 위해서 그토록 애를 쓰고 고귀한 자기의 생명을 그렇게 형성시켜 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쭙잖은 말에 흔들리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자기로 살지 못하고선 남의 말에 그냥 휘휘휘휘 돌아가느냐 이겁니다. 그건 그런 사람들의 노예지 자신이 사는 참사람이 못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일상생활을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날에 가난을 면치 못하고 우환을 면치 못하고 생사윤회를 면치 못하고 끄달리기에 급급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넓어질 수도 없고 물리가 터질 수도 없죠. 집안은 가난하고 항상 오락가락 융합이 되지 않고 한마음으로 돌아가질 않고, 자식은 자식대로 부인은 부인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친척은 친척대로 돌아가는 이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모든 거는 자기가 지어 놓고 자기가 받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어느 사람이 농촌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술을 먹고 들어오면 아무거나 팽개치고 마누라 때리는 습관이 있어서 술만 먹었다 하면 자기 세상이야. 또 그뿐인가. 농사를 짓느라고 소를 기르는데 소한테도 그냥 우악해요. 그래서 소도 질색을 하는 거죠. 한번 부렸다만 하면 소 몸뚱이가 뭐 쳐 놓은 거 같아, 멍이 들어서. 아내가 아침에 쇠죽을 쑤어 주면서 보면 그게 가시질 않는 거예요.

자기도 그러한 경험을 하고 그런 아픔을 겪기 때문에 소가 그렇게 겪는 걸 보니 소하고 마음이 항상 통하는 거예요. 소더러 하는 소리가 "너나 나나 얼마나 죄가 많기에 저런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맞아야만 할꼬." 이렇게 울어야만 했고 "그렇다고 해서 살지 않을 수도 없고 어떡하면 좋으냐?" 하면서 쇠죽을 쑤어 주면서 같이 운 예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것이 마음에 잠재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어서 바로 남편이 되고, 그 남편은 여자가 돼 버렸어요. 소는 그 집의 아들이 돼 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횡포를 부렸던 남자는 이제 부인이 됐는데, 아들은 아버지하고는 잘 맞는데 어머니하고는 도대체 맞지 않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